

전주 대변혁 '시동' 국가예산 대거 확보

종합경기장 개발사업 추진·탄소·드론 등 미래 신산업 집적화·고도화로 강한 경제도시 기틀 마련

우범기 전주시장은 '경제·산업·문화·복지' 분야의 2023년도 예산을 대거 확보하면서 희망찬 미래 전주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미래세대에 대한 당당한 '전주의 위상과 전주 대변혁'의 위상을 새로운 기대치로 확산시켜 선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우범기 시장은 "전주를 강한경제 산업도시로, 미래 광역도시로, 글로벌 문화도시로, 천년을 여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전주시민과 함께 최고의 역할을 다하고 싶다"고 강력한 포부를 밝혔다.

따라서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 대변혁 '신호탄'으로 광역도시 기틀로 마련하기 위해 국가예산 중 분야별로 살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광역·미래도시 분야'에서 신규사업 7건(249억원)을 포함한 73개 사업에서 4,290억원의 예산이 확보했다.



국가예산 관련 브리핑

충을 위한 '기린대로 BRT 구축(7.5억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12억원), 미래형 캠퍼스혁신파크 조성 예산' 등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전주를 구현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했다.

여기에 시는 미래 신산업 이끌 강한 경제도시로 우뚝서기 위해 예산과 더불어 전주가 탄소산업과 드론산업 등 미래 신산업을 주도하며 강한 경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경제·산업분야 예산을 확보했다.

대표적으로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 및 규제 샌드박스(16.8억원)' 등 R&D(연구개발)를 활성화하고, 규제로 제한받지 않는 미래 신산업 혁신거점이 되기 위한 신규예산을 대거 확보했다.

또 '탄소복합체 가공공학 연구센터 구축(38억원), 메카노바이오 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22.6억원)' 등의 예산도 챙기면서 드론·탄소

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집적 고도화로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한다.

여기에 계속사업으로 드론스포츠복합센터 건립과 전주 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SOC사업도 추진될 예정이어서 전주가 대한민국 소재산업을 이끌어가는 강한 경제도시 면모를 갖춘 기반도 갖췄다.

'더 다양해지는 문화, 더 매력적인 관광'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도시답게 문화·관광분야 예산으로 11개 신규사업(45억원)을 포함한 40개 사업(799억원)의 문화 관광분야 예산을 확보해 다양한 문화자원과 매력을 가진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모든 예산을 활용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관광자원 브랜드를 육성하고, 한옥마을 관광 외연 확장을 통해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확대한다.

특히 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관광자원 브랜드 육성을 위한 예산에 '전주음식관광의 체계적 지원 및 글로벌 음식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음식장조관광타운 조성사업'(5억원), 한복문화 확산과 주변확대를 지원하는 '지역한복 문화장작소 조성사업'(3.5억원), 세계적인 성지순례지로 거듭나 지역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통성당 사적화 공익사업'(2억원), 어린이·청소년들의 무형유산 체험 기회를 확대할 '국립 어린이무형유산 전담 건립'(2억원)' 등을 확보했다.

시는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예산(88억원)도 챙기면서 관광기반 조성 콘텐츠 육성, 홍보마케팅 및 스마트관광인프라 구축 등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연계사업도 추진한다.

또, 동아시아 문화도시 추진(69억원),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65억원), 안산철봉 한빛마루 공익 조성(30억원) 등 글로벌 문화도시 위상 강화와 역사문화유산도시 조성, 시민관광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의미 있는 예산도 따냈다.

이외 시는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4.7억원),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1.9억원), 객사천 재해 위험지구 정비(8.8억원), 이중호수길 급경사지 비탈면 정비(4억원), 조촌천 재해위험 정비(12억원) 등 시민 모두가 동참하는 공동복지 실현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김영태 기자



우범기 시장은 26일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폭설·한파로 인해 손이 닿지 않은 취약지와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점검을 주문하며 대응 미비점 보완을 주문했다.

"폭설 대응 문제점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

우범기 전주시장, 전반적 세설 대응 미비점 보완 주문

우범기 전주시장은 폭설·한파로 인해 손이 닿지 않은 취약지와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점검을 주문하며 대응 미비점 보완을 주문했다.

26일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폭설 대응에 힘써준 봉사자 등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세설 과정에서 운영된 장비와 인력 등을 전반적인 상황을 반추해 미흡했던 점을 찾아 보완하라며 세설 후속 조치에 대해 언급을 했다.

우 시장의 발언은 폭설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점에 대한 시의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려는 의미이다.

특히 이 자리를 통해 우 시장은,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문제와 정비·인력 동원 체계, 효율적인 세설 차량 운영, 연화칼슘 비축, 유

관기관과의 협조체계 등 대응 상황을 전반적으로 반추해서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또 "폭설 이후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점에서도 꼼꼼히 살펴달라 당부하며, 최근 폭설에 주저없이 시민 불편을 덜어준 봉사자 등에게 감사"를 전달했다.

우 시장은 폭설·한파 등에 취약한 독거노인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취약계층을 찾아 나서는 현장 점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우범기 시장은 "세설 작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상황을 잘 살펴 보수해야 할 부분은 신속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폭설·한파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복지 사각지대도 직접 찾아가 챙기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안착 '만전'

기부금으로 지역문제 해결 도모·지역업체 답례품 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전주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안착을 위해 전주시 홍보대사인 윤균상 배우와 협업해 차별화된 홍보를 전개하고, 지역업체가 생산한 대표상품을 답례품으로 선정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들이 현 주소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인 기금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 등 지역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지역업체의 우수상품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공급해 지역업체와의 상생을 꾀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국민들이 전주시 고향사랑기부제를 인식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9월부터 전주시 주요 진·출입로와 거점지역에 현수막 등 홍보물을 게시하고, 비빔밥축제 등 대표 축제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현재 활발한 작품활동으로 전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전주시 홍보대사 윤균상 배우와 접촉해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홍보영상을 제작해 지난 11월 한 달간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동시에 시는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용산역과 고속버스터미널역, 광주광역시 송정역 등을 주요 타깃으로 홍보영상 송출하는 등 전주시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는 데 집중했다.

이와 함께 시는 답례품 선정 시 기부자들의 폭넓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업체의 참여 속에 답례품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답례품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

지인 전주한옥마을을 속박할만큼을 비롯해 떡, 부각, 커피, 청, 참기름·들기름, 누룽지, 볶음밥을 비롯한 가공식품, 전주 배와 쌀 등의 농산물, 한지 청사초롱, 수제도장, 비누공예 등 공예품, 바 이점주우수상품으로 등록된 이강주 검은콩 미숫가루와 백김치, 전주시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한 잼 등 각종 꾸러미 상품이다.

최라기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내년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원년으로 기부금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모금 추이를 살펴보면 지역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기부 사업을 발굴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적극적인 공적적인 홍보를 전개해 참여율을 늘리고, 답례품의 품질을 지속 관리해 기부자들의 재기부를 이끌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도로 위 블랙아이스 주의하세요"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블랙아이스 등 도로 결빙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평상시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더 높아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블랙아이스는 눈비가 내린 뒤 녹았다가 추운 날씨로 도로 위에 얇게 얼어붙은 투명한 빙간길을 말한다.

블랙아이스는 육안으로 쉬이 구별되지 않고 미끄러워 브레이크를 밟아도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실제 도로교통공단의 결빙 교통사고를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7년~2021년) 발생한 결빙 교통사고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2.5로 조사되며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6에 비해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블랙아이스 취약 구간은 '그늘지는 모퉁이, 햇빛이 들지 않는 터널 양 끝 지점, 그늘진 곡선도로 고가 위, 아래 지점, 해안도로, 연화칼슘 뿌려진 도로' 등으로 이 구간에서는 급제동, 급



가속, 급회전을 금지하고 감속 운전 및 차간거리 유지해야 한다.

특히 블랙아이스 결빙구간에서 미끄러짐 발생 시에는 핸들을 차체가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돌리고, 브레이크는 여러 번 나눠 밟아 차체가 더 크게 회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염정길 구조·구급팀장은 "겨울철 결빙구간 미끄러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타이어의 공기압과 마모 상태 등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결빙구간에서는 앞차 타이어 자국 따라 운행하고, 빙판길, 내리막길은 엔진브레이크를 이용하는 등 안전운행에 각별한 주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